

동물과 사람의 교감... 감동의 '생태 극장' 열린다

‘제2회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 21~26일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뒤 방황하던 12살 소년에게 수족관에서 만난 범고래 ‘월리’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존재였다(영화 ‘프리윌리’). 반면, 피서지 해안가에 나타난 식인 상어는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 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영화 ‘조스’). 이처럼 사람과 동물의 교감은 영화의 중요 장르 중 하나이다. 영화는 때론 동물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그리기도 하고,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연과 동물, 사람이 공존하고 교감하는 축제의 장을 선사할 세계 최대 동물영화제인 ‘제2회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집행위원장 김민기)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순천만 정원을 비롯한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프랑스·일본·한국 등 20여개국 60여편 상영

동물사진 콘테스트·펫 힐링캠프 등 행사도 풍성



◇스크린에 담긴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번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는 전세계 20여개국 60여편의 동물과 관계된 영화들이 상영된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와 고양이가 주인공인 영화는 물론 사자와 호랑이, 연어 그리고 대벌레 등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스크린에 등장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공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진중한 작품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기자기한 영화를 선보인다.

이흥기 감독의 다큐멘터리 ‘순천’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 거친 바다와 갯벌에서 여자 어부로 살아온 윤우수 할머니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는 다큐멘터리다.

또 프랑스의 베르나르 블로흐 감독의 ‘고기와 우유’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소를 주제로 했다. 인도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도살되어 팔리는 등 전세계의 다양한 소의 모습을 조명하는 독특한 시선의 다큐멘터리다. 이 밖에 일본의 이이다 모토히루의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와 인간과’는 유기동물 실상을 관찰할 수작이며, 대만의 라에 감독이 유기견 보호소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집이야’도 눈여겨보아 할 작품이다.

한편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흥겨운 인기 애니메이션인 ‘리오2’도 선보인다.

◇순천만, 자연이 준 자생 없는 극장=이번 영화제가 펼쳐지는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한 곳이며, 아름다운 해안 생태경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랍사르 지정 순천습지 생태공원은 세계적으로 1만여 마리만이 남아 있는 천연기념물 제229호 흑두루미를 비롯해 25종의 희귀 조류가 오고 가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이번 동물영화제가 아름다운 생태도시 순천에서 펼쳐지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다.

동물영화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영화로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유기견 입양 등의 동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선 연에게 대표 동물사랑 배우 정경호, 조윤희가 순천만세계 동물영화제의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이 영화제는 동물사랑 프로젝트 ‘마음 나누미’가 후원해 더욱 의미가 깊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견 리브하우스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마음나누미’는 영화 ‘마음이’ 시리즈로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다졌던 영화사 화인웍스를 중심으로 발족한 봉사 커뮤니티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들이 본격적인 영화제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며 교감할 수 있는 ‘동물 사진 콘테스트’가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만 정원으로 떠나는 힐링버스와 열차도 운행된다. 오는 23일 서울 양재역과 부산 서면역,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 힐링버스가 출발하며 힐링열차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수원역, 천안역, 서대전역을 거쳐 순천으로 향한다. 힐링버스는 참가자 1인에 반려동물 1마리의 왕복 참가비를 2만원, 힐링열차는 왕복 참가비 5만원만 접수하면 맛있는 점심은 물론 순천만 정원 무료 관람과 영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영화도 보고 캠핑도 즐기는 ‘펫(Pet=애완동물) 힐링캠프’도 마련된다. 순천만 정원 내의 캠핑장에서 열리는 펫 힐링캠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인용 텐트를 제공해 준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기자 노트

이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다

지난 30일 치러진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수 여당 후보가 야당의 안방인 전남에서 당선된 대이변이었다. 비록 선거 기간동안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긴 했지만 투표함을 열기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였다.

지역민들은 이제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공천= 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을 표명해 주었다. 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변화없는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견고한 지역주의의 벽을 깬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지역 속 원사업인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지정 등 ‘예산 폭탄’으로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



예정열
순천 주재기자

그는 새누리당 중앙당 지원유세도 거절한채 홀로 묵묵히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힘겨운 선거를 치렀다. 그렇지만 이러한 ‘낮은 자세’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은’ 자신의 진심을 설파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논리로 인해 차별을 받아온 정부의 경제적 지원(예산)과 인사정책 등에 대한 지역의 바닥심도 살살이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차례다.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 놓은 이곳을 필두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호남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jy@kwangju.co.kr

주암댐관리단 전시장서 서양화가 김영규 전

순천출신 서양화가 김영규 화백의 순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6일(월요일은 휴관)까지 순천시 상사면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전시장에서 열린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최, (사)순천예총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김 작가의 대표작 ‘꽃밭에서’ 연작과 소품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김 작가는 1977년 순천 매산

고 미술부에서 붓을 잡은 후 원광대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 미술학과 및 조형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일본, 중국 등지의 화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주암댐관리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육구 증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대해 기획전 ‘수(水)리수(水)리 마수(水)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예정열기자 jy@

새 얼굴

“열린 자세, 낮은 자세로 시민 뜻 받들 것”

명 창 환 순천부시장

“열린 자세, 낮은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받아 안고 가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순천시 명창환(46) 신임 부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즐겁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명 부시장은 “공직자들의 앞에 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공직자 여러분 가운데 서서 함께 울고 웃고 부대끼고 호흡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뒤에 남아 혹시 뒤처지고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고흥 출신인 명 부시장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지방고시(제1회)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여수시 기획담당관, 전남도 식품유통과장, 안전행정국장 등을 지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웬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